

## 공부에 관한 소고

내가 아는 것을 나누어주어야 남이 알아주어" 내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결국 "지식은 국력"이란 항등식이 성립된다. 공부해서 국력이 신장된다면 "공부하는 게 애국"이라는 애긴데 애국하기가 이렇게 쉽다니.

이 정도면 공부해서 손해볼일은 없을 것 같은데...과연 설득력은 있을려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 훈  
053-420-4899

누구에게나 공부라면 땀한 한이 많을 것이다. 공부처럼 우리 부모세대를 괴롭힌 것은 없었는지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자나깨나 공부타령이었다.

중학교부터 입시로 잔뼈가 굵은 나는 평화 시대에 나만은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침뱀은 우물에서 냉수 마시듯 나도 우리 노인네 마냥 아이를 다그치고 있다. 공부는 지겨운 일이며, 집중이 필요하고, 눈앞의 어른거리는 수 많은 유혹과 즐거운 일을 포기해야 하기에 어려운가 보다. 얼마 전 한 아이가 부모에게 "공부는 왜

해?"라고 묻는 방송광고가 있었다. 무수한 변명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기억된다.

아이에게도 설득논리가 필요한 시절이라 생각되어 나 자신에게 물어보니 "왜 사냐?"는 질문만큼이나 답답했다. 정답이야 물론 하늘의 별처럼 많겠으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부형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몇 가지 답변을 만들어 보았다.

첫째, 공부는 직업을 보장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방안이다. 운동이나 예술분야는 1



등만이 살아남는 잔인한 게임이다. 물론 은메달, 동메달도 있기는 하나 금메달만이 기억에 남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 경쟁여건은 무엇을 하던 2등은 “고스톱 2등”으로 간주되는 세계 최악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부만큼은 2등을 해도 단지 운이 나쁜 것일 뿐 일등을 놓친 수 많은 동료의 위로에 감격하고 만다. 물론 1등의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또한 2등을 하건, 꼴찌를 하건 입시에 합격만 하면 수석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평가된다. 직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대에 그래도 가장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40대 명퇴를 걱정하는 자여 신기술을 공부를 하라.

신입사원 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사장이 계속 봉급을 주지 않겠는가. 공부의 결과는 무형의 자산이라 이를 기본으로 하는 부가 가치의 연계와 확장성도 대단히 우수하다. 무엇보다 시간의 제한을 가장 덜 받는 편이다. 대학을 3년만에 졸업했다 하여 우대하지 않으며, 30년만에 고시합격은 비난은 커녕 의지의 한국인으로 칭송받는다. 성경의 용기를 영어로 “JOB” 쓰는 것을 보고 용의 고통에 버금하는 직업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시장경제 자유경쟁 체제에서 직업과 인간자산의 가치는 더욱 증대할 것이므로 공부의 가치는 더욱 소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조폭은 아무나 하냐며 “전국구 깡패 되기보다 서울대 가기가 더 쉽다”는 어느 영화의 대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공부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안전조치이다. 나는 전산쟁이로 살면서 세상에는 선량한 선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오래 전에 깨달았다.

나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위 많은 지인들이 시간과 고통을 감수해 주었으나, 미안하지만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았음을 고통스럽게 고백한다.

많은 컴퓨터 도사들은 에러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랑스럽게 떠나지만, 작업중 파일을 지우거나 심지어 디스크 자체를 포맷해 주기도 한다.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느니 안하는 게 낫다. 마침내 깨달은 것은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 이 모든 사고를 자초한 것이었다. 진정한 전문가(선하든 악질이든)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명의는 절실한 통증과 가짜환자의 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전문가는 금융사기극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 전문가가 학연과 지연으로, 가문의 배경과 목청으로 전문가를 능멸하고 있다면 기업이든 국가든 오래가지는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10쌍 중 한쌍이 이혼한다고 한다. 이혼 남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배우자에 대한 공부가 충분했냐는 것이다. 첫눈에 반해서, 화끈한 무엇에 끌려 열병처럼 치른 결혼이 아니었을까? 과거 중매결혼에는 혼사추진위원단에 의한 적어도 서른가지 이상의 “치사하고 낫 뜨거운” 검증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애결혼이

과연 이보다 더 엄밀한 검증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결혼까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공부의 연속임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공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가설인데 이를테면 머리를 많이 쓰면 혈액의 흐름이 촉진된다는 이론이다.

혈류가 증가하면 모세혈관이 발달하게 되어 우회혈행(collateral circulation)이라는 일종의 비상회로가 생성되며, 중풍이 발생할 경우 우회혈관의 도움으로 생존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가설의 검증은 보건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대입본고사를 치른 집단과 무시험 수능으로 입학한 두 개 표본집단의 치매와 중풍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하면 된다.

검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인구통계 자료수집에 한 50년쯤 걸릴 것 같아 당장 확인은 어렵겠다. 그런데 검증과 관계없이 요즘의 교육환경은 엄청 좋아졌는데 성적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

대단한 시험도 아닌 중간고사 망쳤다고 옥상에서 떨어지다니 부모의 심정은 어떨겠는가. 시험이 끝나면 틀린 문제 숫자만큼 갈레몽둥이로 “뺏따”를 맞아도, 히죽 웃고 넘어갔던 과거 우리의 방식과는 너무나 틀리기에 어안이 병하다.

억울한 구타가 만연하던 그 시절, 적어도 내 주변에 자살은 없었다. 그 시절 이유 없이 맞았던 그 수많은 “구타”는 예방주사처

럼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인하게 해주었다고 믿는다. 맞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덕에 우리의 뇌혈관은 매우 발달했을 것이다.

천재가 요절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가? 천재는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다. 정치가를 보라. 머리가 나쁠수록 머리를 더 써야하므로 오래 살 확률이 더욱 높다.

“배워서 남주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거지”라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 이제와 생각하니 “배워서 남 주는 게 남는거”란 생각이 든다. 내가 아는 것을 나누어주어야 남이 알아주어 “내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결국 “지식은 국력”이란 항등식이 성립된다. 공부해서 국력이 신장된다면 “공부하는 게 애국”이라는 애긴데 애국하기가 이렇게 쉽다니, 이 정도면 공부해서 손해볼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설득력은 있을려나.

| 표준 2007. 2